

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으로 국민 힘들어”

원내대책회의...민생 고통·외교 참사·민주주의 퇴행 지적 '야당·국민과 소통으로 사람 중심 국정 기초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이 퇴행했다”고 혹평했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삼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은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 경제와 균형 외교, 소통 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기를 바란다”며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기초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에 엄청난 내수 부양책을 냈는데, 한국만 지난 1년간 한 번도 민생 대책을 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생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30여 회 발사했고, 제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대국 정책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이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 사이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퇴행이 이뤄져 국민도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준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나와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는 ‘폭망’했고, 검사 독재에 외교 참사에 ‘전쟁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고, 사회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범죄, 마약 범죄 기승의 원인을 과거 정부 정책으로 지목하는 등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비난하는 언급도 나왔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집권) 2년째부터는 ‘내 탓이오’라고 하셔야지, ‘입만 열면 문제인 탓’ 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민생 경제를 위해 협치와 외교를 챙기라”며 “소통을 중시하셔야지, 취임 1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배진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어 마지막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며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모든 걸 바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 잡겠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일렬종대로 정렬한 ‘획일주의’ 여당보다 다양성을 가진 야당이 협력·연대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배 원내대표는 인천 남동구청장과 인천 교육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NL(민족해방) 계열인 인천연합을 주된 정치 기반으로 됐다.

정의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결정하려 했으나 배 원내대표와 정재영 의원 가운데 누구를 택할 지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지 않아 이날로 원내대표 선출을 미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광주서 총선 예비

동구에 경제연구소 개소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광주 동구 용산동에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하 연구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섰다. 안 전 차관은 이 연구소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와 혁신, 지역개발, 지역산업 등 정책과 현안 사업 발굴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안 전 차관은 “전문가, 지역 주민과 함께 대형 지역발전 프로젝트 기획과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

육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지역 경제연구소가 될 것이다”면서 “누구보다 경제, 예산,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정 분야에 탄탄한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과 예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전 차관은 행정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경제·고용복지 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지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남국 “국민 눈높이 못 맞춰” 60억 코인 논란 사과

국힘 공세에 여론 악화...“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두고 9일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9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페 보유 관련 “탈법·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김남국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들과 당원께 머리숙여 사과하고, 관련 정보 전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 불법·탈법이 있었느냐,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느냐, 서민 코스프레를 했느냐 등등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더이상 분별없는 발언으로 당 전체를 욕되게 하지 말고, 첫 등문 때의 초심으로 돌아

가 공직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한 후 명백한 해명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이라며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밝아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고 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데 뛰어든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회관 의원실로 향하는 김남국 의원 정청래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에 투자를 했느냐라는, 예를 들면 국민 정서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거나 또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고 조언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언론보도 나흘만인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밝혀지고 여론이 집중 공세를 퍼붓자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바보인척 하는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지만, 갈수록 여론이 나빠지고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결국 나올 만에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자금 출처를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